

## 국제투기자본과 시민사회: 조지 소로스와 열린사회 연구소를 중심으로 본 정책지식의 확산과 국제시민운동

김 성 현\*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는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의 모체로서 작동하는 민간 활동 및 보조를 제공하는 재단이다.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는 전세계에 걸친 국내재단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사회 연구소와 그 산하의 네트워크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통해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열린사회”를 촉진하려는 광범위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다. 열린사회연구소는 민간재단의 초국적인 활동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소는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에 정책적인 전문성과 최선의 정책 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 이 글은 시민사회가 국가나 새롭게 등장하는 초국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난다. 이상주의적이고 규범적인 정책의 유연한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는 시민사회에 존재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창하지만 사실상 특정한 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관여하는 민간 행위자의 활동을 해부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국제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형식을 통해 접속함으로써 진보문화와 박애주의 투기자본의 복합체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제시민사회, 소로스, 열린사회연구소, 국제투기금융, 박애주의, 초국적 주창네트워크, 인식공동체

\* 한양대학교

## 1. 서론: 국제사회에서 지식과 규범의 확산에 대한 연구

1993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에 의해 설립된 열린사회연구소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기부재단이다. 이 재단은 60여 개국에 걸쳐서 국제기구 및 국내 재단들과 거대한 연합체를 형성한 소로스 재단의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열린사회연구소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골자로 한 ‘열린사회’의 가치와 정책 모델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정책 개혁과 민주주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열린사회 담론은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국 현지에서 열린사회연구소는 법의 지배(rule of law), 교육, 공중보건, 독립 미디어를 후원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부패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열린사회연구소 활동의 핵심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고 능력을 제고하며, ‘열린사회’의 가치에 입각한 최선의 정책모델을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국가들에 전파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책아이디어와 전문성의 순환에 대해 최근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Ladi 2005; Levi Faur 2005; Simmons, Dobbin & Garret 2006).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주창네트워크(advocacy network) 등의 분석개념을 활용하는 이 연구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한 정책 모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을 미세하게 분석한다. 지식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이 방법은 수평적인 정부 간 교류의 관점에서부터 수직적인 초국가적 정책기구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이전이 발생하는 잠재적인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잠재적인 영역이란 공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계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정책과 실무의 전파와 수용은 국가들만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초국가적인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보완되거나 공식적인 경로를 우회하곤 한다. 이 점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국익을 중심으로 국가들 간의 관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던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에 비해 국제관계의 연구대상을 크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현상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 접근 방법은 국내적인 행위자와 국제적인 행위자, 민간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만나는 접점을 발견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 네트워크 분석은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정책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교환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책적 객관성과 과학성을 표방하는 전문가들의 국제네트워크는 주로 민간영역의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및 국제 공공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정한 정책 모델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함과 동시에 역으로 이 표준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도구와 이론들을 개발해 내기도 한다.

셋째, 네트워크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시민사회는 세계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세계화를 추동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시민사회의 발전을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과정으로 해석하거나 기능적 필수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하곤 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거시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로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새로운 행동의 규칙과 규범을 생산하고 표준화함으로써 기존의 국제

구조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들에 주목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방법은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구체적인 교환관계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고 네트워크상의 행위자들 간 불평등한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할 위험이 있다. 특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수평적인 합의와 타협의 과정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접근은 국제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도외시킬 수도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완결된 이론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과학이론과 결합한 분석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보다 진지한 권력문제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공정책 네트워크 분석가들과의 논쟁을 통해 프랑스의 정책학자 아센퇴펠(Hassenteufel 1995)은 네트워크 분석이 국가론과의 접목을 통해 공공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권력관계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브 드잘레이와 브라이언트 가스(Dezalay, Garth 1998; 2002), 니콜라 기요(Guilhot 2005; 2006)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성찰사회학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수한 전문성과 규범을 생산하고 국제적인 지형에서 표준으로 가공하며 각국에 전파하는 행위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고유한 규칙을 가진 장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집단과 열세에 놓인 집단이 장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정의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장의 행위자들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고 이러한 동맹관계를 통해 다른 장의 전략적 자본들을 자신의 장에 도입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전략적 자본들을 다른 장에 빌려 줌으로써 비주류를 계속 열세로 내몰거나 주류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인

다. 니콜라 기요는 경제적인 장에서 주류의 지위를 점유한 산업자본과 이들에 대한 도전자로서 국제투기자본에 주목하여 장 내에서 투기자본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주류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최근에 (옛 산업자본의 특권영역이었던) 박애주의 영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권력과 가까운 NGO들의 활동을 권력에 대한 종속이나 식민화의 결과로만 간주하기 보다는(물론 이점을 전혀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장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이러한 식민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 장 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결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로스의 열린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순환하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박애주의와 정책지식의 확산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는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는 자율적인 국내재단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사회 연구소와 그 산하의 네트워크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통해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열린사회”를 촉진하려는 광범위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다. 열린사회연구소는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국내적, 국제적 영역에서 표준화하려는 민간재단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소는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에 정책적인 전문성과 ‘최선의 정책 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 이 글은 시민사회가 국가나 새롭게 등장하는 초국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난다. 이상주의적이고 규범적인 정책의 유연한 이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 연구는 시민사회에 존재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창하지만 사실상 특정한 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관여하는 민간 행위자의 활동을 해부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국제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형식을 통해 접속함으로써 진보문화와 박애주의 투기자본의 복합체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 2. 국제적인 정책전문성의 순환

정책의 이전(policy transfer)은 정책과 관련된 지식에 의해 어느 한 장소의 정책, 행정계획, 혹은 제도가 다른 곳의 정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초국가적인 과정이다. 정책의 이전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제도, 이데올로기, 태도, 아이디어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Stone 2008, 4), 정책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과 정책 및 이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당화 전략의 이전을 포함할 수 있다(Dezalay, Garth 2002).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정책지식의 전파는 정책의 수출-수입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경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의 내용이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지식들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이전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겪게 된다.

정책의 이전은 현지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국가나 정파의 목적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두 가지 모두의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다. 정책이전에 대해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사례 중 특정한 것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로즈(Rose 1993)가 활용하는 ‘교훈의 습득(lesson-drawing)’이라는 표현은 정책의 이전을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베넷(Bennett 1991)에 의해 활용된 국제적 정책행위자들에 의한 ‘침투(penetration)’라는 표현은 정책이전에 있어서 강제적인 특징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티글리츠(Stiglitz 2000)와 세계은행은 보다 중립적인 ‘확산(diffusion)’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책이전의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강제로서 강한 국

가나 국제기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브레턴우즈 기관들이 금융위기에 직면해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거나 빈곤감축차관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지원을 대가로 정책개혁의 조건들(conditionality)을 요구함으로써 (혹자는 이것을 정책지원이라고도 부른다) 특정한 정책이 수혜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이다(김성현 2008a).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열린사회연구소 같은 NGO들은 이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들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없지만, 가끔씩 강제적인 정책이전의 과정에 협력하는 NGO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운더스(Saunders 2000)와 콜만(Coleman 1989)은 냉전시기 반공을 기치로 한 국제 인권 및 민주화 촉진 운동에 참여한 국제 지식인들과 미국 안보 및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문화적 자유를 위한 협회(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미국민주주의 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은 미 행정부의 안보기관과 보조를 맞추어 국제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구)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의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성현 2006; Guilhot 2005). 이처럼 강력한 국제행위자들에 의한 정책전문성의 이식에 있어서 NGO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자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 이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NGO를 제국주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Petras 2001).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NGO를 단순한 정치경제적 권력의 도구로 간주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 머물면서 자신의 가치와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자본과의 부분적인 동맹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Dzalay, Garth 2002; Guilhot 2005; 김성현 2008b).

비정부행위자들이 규범과 전문지식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연한 정책이전의 형태들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실무를 보완하고 있다. 박애주의 기구로서 열린사회 연구소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영역에서 정책이전을 주도함과 동시에 각국의 재단들과 연대함으로써 현지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비정부기구로서 열린사회 연구소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혁신적인 조직형태, 정책이전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이 기관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국제적인 규범의 행위자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공정책의 이전을 위한 정책파트너십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와 정부의 주변부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지뢰금지 캠페인, 범세계 수자원 파트너십, 정부 간 삼림보호 회의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 정부기관들은 사실 이 네트워크의 정책에 대해 특수한 이익을 보유한 각양각색의 NGO와 공동체 그룹, 그리고 기업 등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네트워크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국내기관과 국제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고 자문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기관으로 제도화됨으로써 거버넌스 구조로 발전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정책, 민주주의, 인권 같은 규범의 확산에 관여하는 지식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유형인 초국가적 주창네트워크는 상호 믿음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비정부 조직들과 활동가들을 아우른다(Sikkink 1993). 이 네트워크들은 공개논쟁을 추구하고 범세계적인 정책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이 네트워크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범세계적인 공공정책 네트워크보다 덜 통합적이고 분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위들은 가치의 공유, 복잡한 정보와 서비스의 교환, 그리고 담론의

공유를 통해 함께 협력한다. 초국가적 주창네트워크들은 도덕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슈들을 설명하는 상징과 언어 그리고 인식의 틀을 이끌어 냄으로써 운동권 단체들에게 규범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때때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가치가 개입된 논쟁들을 활성화하며 이러한 가치의 국제적인 표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다.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고 상이한 참여의 동기를 가진 행위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호 유사한 세계관을 발전시킨다. 주창네트워크는 공통의 과학적 기반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 대안을 공유하고 객관적인 정책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와는 달리 옹고 그릇에 대한 규범적 아이디어를 통해 협력한다.

국제적인 지식네트워크의 또 다른 유형은 인식공동체이다. 과학적인 지식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국제지식네트워크는 연구결과의 공유와 국제적인 유포,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인식공동체의 주요 목표는 지식을 생산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의 도입과 실무에 대한 적용을 위해 이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Haas and Haas 1995). 전문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입안, 분석, 평가는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제공한다. 전문가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지닌 학문적 인증과 전문적 자원은 이들에게 높은 신뢰성과 위상을 부여하고 정책 논쟁에서 이들의 견해를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열린사회연구소는 조직형태와 활동방식에 있어서 다양성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네트워크의 성격을 모두 보여주는 매듭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열린사회연구소가 일관성이 없이 분열하는 집단임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린사회연구소가 주도하는 네트워크에 속한 전세계의 기관들은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규범적인 주장 활동을 벌이는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인식 공동체의 특징을 더 강하게 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특징과 과학적 특징의 결합은 현재 박애주의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정책모델을 동시에 전파하는 대부분의 거대 재단들의 특징이 되고 있다.

### 3. 국제투기금융과 박애주의 활동

시민사회는 세계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반대로 세계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첫째, 경제적 세계화, 둘째, 국제법규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권위의 강화, 셋째, 세계시민사회간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창네트워크와 인식 공동체는 정책결정을 초국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도의 응집성을 가지고 공공부문과 경쟁하는 강력한 민간의 권력을 대표한다.

현재 시민사회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배 엘리트들이 구성하고 박애주의 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거대 영리기관이 설립한 박애주의 재단이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전문성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의 인식공동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연구와 운동의 지원, 새로운 기관의 설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영향을 통해 사실상 민간 국제 원조 및 기부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과거의 국제박애주의 활동을 담당했던 포드, 록펠러 같

은 재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 시민사회에 등장한 투기금융과 벤처산업의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헷지펀드 전문지에 따르면 2005-2007년 동안 미국의 헷지펀드(Hedge fund)가 설립한 재단들의 자산은 총 46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31%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Absolute return June 11, 2008). 이러한 증가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해 국제경기가 침체에 빠져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다. 심지어 상위 25개 헷지펀드 재단의 당해년도의 기부액은 61%가 증가한 4억5900만 달러에 달했다.<sup>1)</sup>

〈표〉 자산보유면 최상위 5대 미국 헷지펀드 재단 (2005-2007)

순위	대표자	기업명	재단명	총자산(\$)
1	George Soros	Soros Fund Management	Open Society Institute	1,315,260,430
			Soros Economic Development Fund	139,591,713
			Soros Fund Charitable Foundation	112,388,634
			Soros Charitable Foundation	90,731,433
			Soros Foundation-Hungary	41,274,069
2	Julian Robertson	Tiger Management	Robertson Foundation	750,981,022
			Tiger Foundation	18,608,109
			The Blanche and Julian Robertson Family Foundation	25,510,270
3	Jim Simons	Renaissance Technologies	The Simons Foundation	477,022,066
4	Stephen Mandel	Lone Pine Capital	Zoom Foundation	196,635,119
			Lone Pine Foundation	16,715,612
5	Boone Pickens	BP Capital Management	T. Boone Pickens Foundation	189,000,000

출처: Absolute Return. 2008. 6. 11.

1) 미국 헷지펀드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bsolutereturn-alpha.com/> 사이트를 참고.

이처럼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들은 단순한 기부나 원조 활동을 넘어 각국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활동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이 기관들은 직접 정부를 상대하기 보다는 대개 정부기관과는 달리 위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글로벌한 정책전문성을 보유한 현지의 인물이나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후원과 재정, 나아가 명성은 현지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간에 그것의 획득을 둘러싼 경쟁을 유발한다(Stone 2008, 11). 열린사회연구소와 이 연구소의 설립자인 조지 소로스는 이와 같은 투기자본의 국제적인 박애주의 네트워크의 모든 현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조직의 권위와 합법성은 무엇보다 지적인 활동과 조직의 경영능력에서 비롯된다. 또한 시민사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리부문과 정치기구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박애주의 재단들은 특히나 이러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제3섹터의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의 연례보고서는 실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용어들로 가득 차있다(Carothers 1999, 273).

열린사회연구소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 주어진다. 이는 국제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표방하는 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수주의 시민단체인 민주주의재단(NED)의 경우 존스홉킨스 대학을 통해 민주주의저널(Journal of Democracy)을 발행하며 민주화 이행론과 공고화론의 탄생과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Guilhot 2005; 김성현 2006). 또한 1950년대와 1960년대 문화적 냉전을 수행했던 문화적 자유를 위한 협회(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는 1955년 밀라노 회의를 통해 이데올로기 종말론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Saunders 2000). 이처럼 국제적인 인권, 민주주의 주창네트워크는 다른 한편으로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인식공동체로서 활동하기도 하며 그것은 이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싱크탱크를 통해 구현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학문적이고 수사적인 전략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원칙들이나 규범적인 것들에서부터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인권,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향한 국가의 이행전략, 정책적인 처방 등을 포함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4. 국제공공분야와 민간부분/ 영리부분과 공익부분의 매개자: 조지 소로스와 열린사회연구소

조지 소로스는 탈산업-금융중심의 첨단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투기자이자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예언가로 유명하며 박애주의활동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국제기구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판과 존경을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각국 금융시장 폭락을 유발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야만적인 인수합병과 기업의 매각으로 비난을 받는 반면에 50여개 국가에서 공익활동을 후원하는 인물로 존경받기도 한다. 그의 재산은 7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정치적으로 그는 부시 가문과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미국 대선 때 부시 대통령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시가문과 그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선언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소로스는 1990년대에는 부시가문을 파산에서 구해준 바 있으며, 현재에도 부시가문과 함께 막강한 정치, 금융적 영향력을 보유한 칼라일 그룹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개발도상국과 동유럽의 이행기에 있는 국가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함과 동시에 몇몇 국가의 정권교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부(CIA)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의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1930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소로스는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1947년 영국으로 이주했다.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그는 평생에 걸쳐 그의 사상적 지주가 되는 두 명의 대사상가(포퍼와 하이에크)에 매료되었으며 특히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들의 적들』은 열린사회연구소의 활동원칙의 근간을 이루었다. 1956년에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친구의 권유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간 소로스는 헛지펀드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 상품은 그에게 큰 번영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그는 퀴텀 펀드라는 투기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3년 포브스에 의해 미국에서 28번째로 부유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

투자가로서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에 대한 투기를 통해 영국 국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1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후 “영국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처럼 탁월한 투자능력 덕분에 소로스는 투기업자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왔다. 1987년에 소로스는 유럽의 주가 폭락에 의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특히 태국과 한국, 인도네시아 금융위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와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다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sup>2)</sup> 그러나 경제적인 영역에서 소로스가 거둔 성공은 그의 탁월한

2) 프랑스의 조절이론 경제학자 자끄 사피르는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경제개혁과 1998년 금융위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수행했다. 그는 학계(하버드 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미국과 러시아 행정부, 과두제를 형성한 러시아 은행들, 국제금융기구, 민간 사업부문의 엘리트 사이에 존재했던 전문

투자능력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국제적인 거물 정치인들의 비호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이따금 제기되곤 한다. 퀀텀 펀드의 초창기 멤버 중에는 러시아의 정유회사 유코스(Yukos)의 대표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M. Khodorkovsky)와 그의 대리인 데이콥 로스차일드(Jacob Rothschild),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제임스 골드스미스(James Goldsmith), 이스라엘의 유명한 무기상 에드먼드 사프라(Edmond Safra)의 대리인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미국의 『The Nation』지는 조지 소로스가 Harken Energy와 Spectrum<sup>7</sup> 등의 회사를 통해 1990년대 부시 가문의 부채를 떠맡음으로써 파산을 막아주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소로스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2년 소로스는 코도르코프스키와 함께 칼라일 그룹(Carlyle)그룹에 가담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온상인 이 그룹은 현재 세계최대의 자산관리 기관이자 미국방부의 11번째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9.11사태 이후에는 빈라덴 가문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관리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소로스는 1993년 열린사회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박애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 초창기 열린사회 연구소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보호, 몇가지 약물의 합법화, 마약퇴치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그 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는 주창네트워크와 인식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첫째, 열린사회연구소는 무엇보다 다른 시민사회그룹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후원하는 활동에 관여한다. 둘째, 열린사회연구소의 국제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조직들 중 일부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교조적인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러시아에 부과하고 그로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Sapir 2002. 특히 chapitre 1을 참고). 소로스 역시 이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이었다.

미칠 수 있다. 동유럽국가간 지원 프로그램(East-East program)은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최선의 정책집행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열린사회연구소는 규범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 연구소의 유럽연합 감시와 주창프로그램(European Union Monitoring and Advocacy Program: EUMAP)은 각국의 전문가들과 비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유럽연합의 민주적 가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의 집행을 감시하고 후원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열린사회연구소는 비록 기업가들의 이익집단은 아니지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와 기업발전(Economic and Business Development)”같은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열린사회연구소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다양한 연구그룹과 싱크탱크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열린사회연구소는 법적으로 중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과 분리되어 있지만 두 기관의 설립자인 소로스에 의해 사실상 자매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중유럽대학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동유럽 엘리트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정정책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린사회연구소는 풀뿌리 운동중심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반세계화 운동단체들과는 그 이념과 목표에서 구분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관계를 맺고 있다. 네트워크 구조를 갖춘 열린사회연구소는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대립하기도 하는 조직들의 집합으로서 이른바 “현대의 초국가적 진보 시민운동”의 사례로 간주되는 (Khagram 2006, 20) 글로벌 소셜포럼(Global Social Forum)에 관여하기도 했다. 최근에 열린사회연구소와 소로스는 국제기구의 책무성 부족

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창하는 대안적 세계화운동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50여 개 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열린사회연구소 외에도 소로스는 중요한 국제시민단체들에 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이다. 1970년대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것은 휴먼 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위기를 통해 시민권 운동을 주도했고 휴먼라이츠 워치의 설립에도 기여했던 네이어(Arych Neier)는 현재 열린사회연구소의 대표로 재직중이다. 한편 ICG를 통한 소로스의 활동은 국제민주주의 운동에서 소로스 네트워크가 사실상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ICG는 1994년 비정부 외교조직으로 설립되었고 조지 미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가 되었다. 초창기에 브룬디, 나이지리아, 시에라레온에서 활동을 전개한 ICG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거치면서 NATO와 협력했다. 이 기구의 현 대표는 전직 핀란드 대통령 마르티 아티사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에는 NATO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몇몇 이사회 멤버들을 살펴보면 전 미국 국방보좌관 리처드 알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사우드 나시르 알사바 쿠웨이트 왕자,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직검사로서 구유고슬라비아 사건을 담당했던 루이스 알보, 유고슬라비아 내전 동안 NATO의 총사령관이었던 웨슬리 클락 등이 있다. 이사회에는 또한 칼라일의 거물들도 발견되는데, 전 필리핀 대통령 피델 라모스, 코도르코프스키가 참석하였으며, 쇼아 기념관장 시몬느 베이유, 전 코소보행정관이었던 베르나르 쿠슈네르의 아내이자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틴 오크랜트 같은 프랑스 인사도 발견된다. 소로스는 2001년 미국무부가 조직한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y) 정상회담에 참여해 NGO를 동원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동맹계획(Democracy Coalition Project)을 만들기

도 했다.

소로스의 자문가들중에는 다수의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일종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웹진 볼테르(Voltairenet.org)가 확인한 프랑스 학자들만 예시해 보면 전 IMF 총재 미셸 캉드쉬(Michel Camdessus)와 다니엘 코헨(Daniel Cohen), 장-폴 피투시(Jean-Paul Fitoussi), 장-피에르 레만(Jean-Pierre Lehman) 등 신자유주의 경제전문가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그 피에르 노라(Pierre Nora), 프랑스와 에이스부르(Francois Heisbourg, 자끄 루프니크(Jacque Rupnik) 등이 소로스와 친분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동유럽의 미디어를 통해 이행기에 있는 구사회주의 국가들로 확산된다. 소로스는 냉전시기 CIA에 의해 운영되었던 자유유럽라디오(Radio Free Europe)의 아카이브를 구입해 네트워크 미디어 프로그램(Network Media Program)을 설립했다. 이 방송국의 전직 지도자였던 허버트 오쿤(Herbert Okun)은 현재 열린사회연구소의 간부이기도 하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동안 B92 라디오와 이라크의 몇몇 자유주의 언론사와 독립적인 대중매체 방송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소로스는 또한 181개 국제 일간지에 정치인들에 대한 논평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를 통제하고 있다.

소로스와 열린사회연구소의 활동은 현지 국가의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조지 소로스는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의 정부의 “민주화”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특히 폴란드에서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 자루젤스키(Jaruselski) 장군과 친분관계였으며, 동시에 폴란드 자유 노조(Solidarnoc trade union)의 공식 지도자이고 현재 ICG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제레멕(Bronislaw Geremek)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의 바클라브 하벨의 “빌로드

혁명(Velvet Revolution)”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르비아에서는 밀로세비치의 몰락에, 그리고 최근의 그루지아 공화국에서는 셰바르나제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대중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열린사회연구소가 추방되기도 했다. 브라질에서도 그의 활약은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200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당시 노동당 후보였던 룰라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국제투기자본이 브라질 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주가와 레알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당시 소로스는 “브라질 국민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아르헨티나 꼴이 되든가 주제 세하(여당후보)에 투표하라”며 브라질 선거에 개입했다.<sup>3)</sup>

이처럼 소로스와 열린사회연구소 그리고 이들이 관여하는 국제네트워크는 한편으로는 초국가적 주창네트워크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공동체로서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지구 곳곳에 전파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국제네트워크는 상호접속되어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제박애주의 단체로서 열린사회연구소와 설립자 소로스는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 영역, 즉 제1섹터와 2섹터를 오가며 제3섹터와 공공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5. 결론: 불투명한 시민사회와 그 행위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인식공동체와 주창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

---

3) 『프레시안』. 2009년 7월 2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2154223&Section=0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2154223&Section=05))

에 걸쳐 특수한 정책지식과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가공하고 전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식의 생산과 확산은 범세계 엘리트 블록의 가장 견고하고 능동적인 부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들은 네트워크라는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들을 통해 사적인 부문과 공적인 부문, 국내와 국제적인 영역을 통제한다. 이처럼 과학과 도덕의 옷으로 치장한 헤게모니 권력은 NGO들과 공생하면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박애주의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도덕사업가로서의 지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진보성을 흡수하고 세계정부처럼 작동한다. 반대로 거대 재단들로부터 재정을 받는 일부 NGO들은 일종의 시민적 도덕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처럼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투기자본이 설립한 재단들이 엘리트 대학에서 멤버를 충원하고 국가기관에서 경력을 쌓았던 옛 인사들의 네트워크의 뒷받침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의 이중성은 매우 모순적인 국제시민사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의 시민사회 내부에는 전통적인 운동방식과 다르게 전문적인 자본과 상징적, 도덕적 자본을 결합한 이중행위자(double agents)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세계에서 얻은 명성을 유지하면서 영리부문으로부터 막대한 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하고 어떤 NGO들은 정부의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등에 업고 민주주의 확산과 빈곤퇴치라는 명분하에 해당 국가에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어떤 로펌의 변호사들은 시민사회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을 위해 봉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익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고삐풀린 이윤추구 활동으로 전세계에 걸쳐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투기자본들은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즉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헤게모니 블록의 활동은 여러 사회영역에 속한 행위자들이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다른 사회영역으로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로인해 시민사회는 갈수록 뚜렷하게 범주화할 수 없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모호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시민사회의 정당성에 대한 상징적인 담론들은 더욱 더 큰 힘을 얻고 있다. 국가권력과 영리적 자본과 구분되는 도덕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시민사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급속하게 확대되는 이 불투명한 영역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3일 접수, 2010년 10월 29일 게재)

#### 참고문헌

- 김성현. 2006. “미국민주주의 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시민사회와 NGO』. 6(1).
- 김성현. 2008(a). “국제금융과 빈곤축소 프로그램.” 『경제와사회』. 80. 275-314.
- 김성현. 2008(b). “국제관계에서 상징적 장의 구성과 지식의 순환.” 홍성민 엮음. 『지식과 국제정치: 학문속에 스며있는 정치권력』. 한울아카데미.
- 홍성민. “국제정치 문화연구 방법론 서설: 지식이전의 국제정치학 연구 노트.” 홍성민 엮음. 『지식과 국제정치: 학문속에 스며있는 정치권력』. 한울아카데미.
- Bennett, Colin. J. 1991. “Review Article: What is Policy Convergence and What Causes I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215-233.
- Carothers, Thomas. 1999.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lark, Neil. 2003. “NS Profile: George Soros.” *New Statesman*. 2 June.
- Coleman, Peter. 1989. *The Liberal Conspiracy*. Free. Press. Rebellion.
- Corn, David. 2002. “Bush and billionaire : How insider capitalism benefited W.” *The*

- Nation*. July 17.
- Dezalay, Yves, Garth, Bryant. 1998. "Droits de l'homme et philanthropie hégémonique." *Acte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21-122. 23-42.
- Dezalay, Yves, Garth, Bryant. 200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ilhot, Nicholas. 2005. *The Democracy Maker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ilhot, Nicholas. 2006. *Financiers, philanthropes: sociologie de Wall Street*. Paris: Edition de Seuil.
- Haas, Peter. M. & Haas, Ernst. B. 1995. "Learning to Learn: Improving Internation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1(3). 255-285.
- Hassenteufel, P. 1995. "Do Policy Networks Matters? Lifting Descriptif et Analyse de l'Etat en Interaction." in Le Galès P. et Thatcher M. (sous la direction de). *Les réseaux de politique publique: débat autour des policy networks*. Paris: L'Harmattan.
- Judith Goldstein and Robert O. Keohane (eds.) 1993.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adi, Stella. 2005. *Globalization, Policy Transfer and Policy Research Institutes*, Cheltenham, Edward Elgar.
- Levi-Faur, David. 2005. "The Global Diffusion of Regulatory Capitalism." in David Levi-Faur and Jacint Jordana, (eds) "The Rise of Regulatory Capitalism; The Global Diffusion of a New Regulatory Ord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8. March 27.
- Petras, James. 2001. "The Ford Foundation and the CIA: A documented case of philanthropic collaboration with the Secret Police." December 15 (<http://www.rebellion.org/petras/english/ford010102.htm>).
- Rose, Richard. 1993. *Lesson Drawing in Public Policy: A Guide to Learning Across Time and Space*, Chatham, N.J., Chatham House.

- Sapir, Jacques. 2002. *Les Economistes contre la Démocratie: Pouvoir, mondialisation et démocratie*. Paris: Albin-Michel.
- Saunders, Francis Stoner. 2000.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New Press.
- Soros, George. 1997. "The Capitalist Threat." *Atlantic Monthly*. 279(2). 45-58. ([http://people.hofstra.edu/faculty/Robert\\_Bohl/News%20Clippings/Political%20Economy/The%20Capitalist%20Threat%20-%20Soros.pdf](http://people.hofstra.edu/faculty/Robert_Bohl/News%20Clippings/Political%20Economy/The%20Capitalist%20Threat%20-%20Soros.pdf)).
- Sikkink, Kathryn. 1993. "The Power of Principled Ideas: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Judith Goldstein and Robert O. Keohane (eds.)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immons, Beth., Dobbin, Frank., and Garrett, Geoffrey. 2006.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Lib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4). 781-810.
- Stiglitz, Joseph. 2000. "Scan Globally, Reinvent Locally: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the Localization of Knowledge." in Diane Stone (ed.) 2000. *Banking on Knowledge: The Genesis of the Global Development Network*. London: Routledge.
- Stone, Diane. 2008. "Transnational Philanthropy, Policy Transfer Networks and the Open Society Institute." *GARNET Working Paper*. 41(8). 1-32.

International Speculative Capital and Civil Society: Policy Diffusion and International Civil Movement by George Soros and Open Society Institute

*Seong-Hyun Kim*

Open Society Institute is a philanthropic foundation that is operating as a base of Soros foundation networks and it gives contributions to the civil society activities. Soros foundation networks are supposed to be a kind of syndicate of autonomous national foundations around the world. Open Society Institute and its networks have an influence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with policy knowledge and expertise and put into operation a lot of initiatives for promoting “open society”. Open Society Institute offers researchers good cases for the study on the transnational strategies of private foundations. In the old socialist countries and the countries in transition to democracy, this institute functions as a great machine diffusing “the best policy model” and neoliberal policy expertise o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his study abandons the assumption that the civil society is completely independent arena from States and emerging trans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ideal and normative policy transactions, it analyses the strategy of private actors who reside in the civil society and reclaim their independence from the public sector but who promote, in reality, their specific policy models around the world.

Key words : international civil society, George Soros, Open Society Institute, International speculative capital, philanthropy,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epistemic community